動物權運動과 研究現代化 法案

의학연구나 약품개발에는 많은 동물이 실험용으로 희생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는 반드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그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쓸데없이 동물을 희생시키는 대신 연구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動物權운동이 미국에 번져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이 운동을 구체적으로 밀고 나온 동물권운동가들과 동물애호가들은 최근 민주당출신의 프레드릭·리치먼드의원(뉴욕)을 통해 「研究現代化法案」을 의회에 내놓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美國立保健研究院(NIH) 내에 「代替研究센터」라는 부서를 새로 두고 살아있는 동물을 실험용으로 쓰지 않고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代案을 제공하는 일을 맡되 그대안에는 수학적모델, 떨어져나온 기관이나 조직이나 또는 세포의 배양, 화학적분석, 모의조직과 체액, 기계적모델,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代替研究센터」가 이런 代案을 제공하는 한편 뜻을 어기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칼자루도 휘두를 수 있는 권한도 주기로 되어 있다. 이 센터는 이런 대한을 일단 美聯邦官報에 올린 뒤에는 만약에 정부가 자금을 주는 연구사업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금을 끊어 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살아있는 동물실험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젝트라면 한건만 국고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일체의 중복은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동물실험이 관련된 NIH연구예산중에서 50퍼센트까지는 살아있는 동물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개발하는데 배정할 권한을 「代替研究센터」에 주기로 되어 있다.

NIH는 이런 연구에 해마다 15억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7억5천만달러까지 배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리치먼드의원의 보좌관인 이트·크레이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듯 우리는 과학지식을 탐구하는데 훼방을 놓을 뜻은 없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중복이 너무나 많고 동물실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에 기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동물실험대신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제도적인 장려책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美下院에서 52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研究現代化法案」은 미국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계류중인 下院의 科学技術分科委員会의 조지E. 브라운 2世 위원장 (민주당·캘리포니어주)에게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원주민들의 격려의 편지가 밀어 닥치고 있다. 매서추세츠주에 근거를 둔 研究動物同盟으로부터 「동물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브라운의원은 아직도 공청회는 계획하고 있지 않으나 生医学者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이 법안에 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브라운의원은 또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美行政府에 맞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保健教育福祉省의 패트리샤 해리스長官이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했을 때 브라운 의원은 NIH가 살아있는 동물연구대안에 관한 전국 회의를 주최할 것을 요구했다. NIH는 이에 동의하고 올 가을께 이런 심포지엄을 갖기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美議会의 動物權의식은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리드먼드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작성했던 뉴욕기반의 「動物을 위한 共同活動·그룹」 (UAA)의 노력이 주효한 것이다. 이들은 현재 美議会에서 로비활동을 벌이면서 의원들과 그 참모진들에게 설득작전을 펴고 있다.

한달이면 두주일은 워싱턴에 살면서 로비활동을 한다는 UAA의 일리노·페레츠맨女史가 다른 동물권활동가들과 더불어 설득작전에서 자주 이용하는 예는 널리 알려진 Ames 테스트이다. 이것은 화학물질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癌을 유발할 능력이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 박테리아 분석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페레츠맨女史는 연구자들이 토끼나 기니아 피그보다 박테리아나 세포조직을 이용하는 것을 가로 막는 것은 종래의 습성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동물권활동가들에 대항하여 과학계일부에서도 규모는 적으나마 로비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美医学研究協会의 전무이사인 터맨S·그라푸턴씨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生医学연구에 破局的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 과학연구기술분과위원회에 보냈다.

그는 동물실험은 많은 비용이 들고 결과가 느리며 신뢰성도 적기 때문에 대체안은 더욱 더 매력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Ames 테스트와 같은 대체방법도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 실증을 해야 하므로 강제성을 띤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 서한에서 「대체방법은 하나하나가 그 방법의 테두리안에서 만든 인공적인 조건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답은 효소·호르몬·자연방어機制와 그밖의 生産学, 神経反應등이 관련된 복잡한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損傷없이 살아있는 동물이나 인체내에서만 경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해리스長官은 「인간시험에 앞서 동물시험을 하지않는다면 이것은 倫理上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행정적인 관점에서도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해리스長官은 「美 保健教育福祉省안에 신설될 이 센터가 国防省, 農務省, 援護処와 그밖의 生医学연구와 관련된 부처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머리가 갸우뚱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의견이 날로 늘어나고 또 이번 96기의회기간중 공청회를 갖기도 어렵다고 생각한 「研究現代化法案」 지지자들은 이번 회기중에 이 법안이 통과 될 전망이 어둡다고 내다보면서도 계속 이 운동을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Science 9 May 1980 pp. 575~576). 〈玄源福記〉.